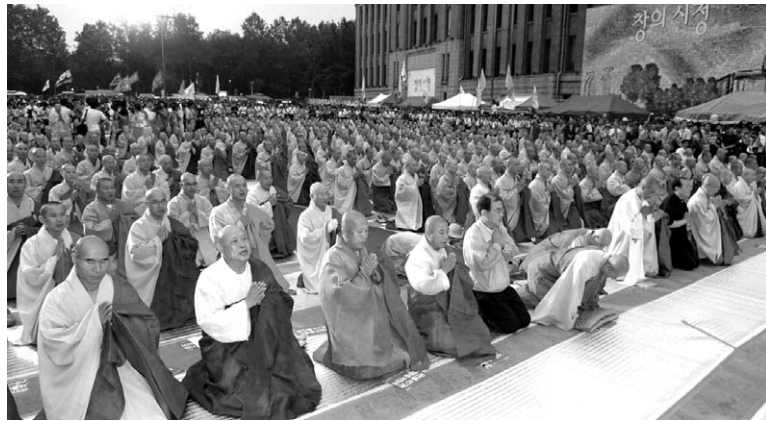


지구촌 네티즌들 “한국 종교편향 이해 안 돼”

해외불교칼럼

최근 격화된 한국 내 종교 갈등에 대한 의인들의 보도가 줄을 잇는다. 지구촌의 네티즌들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광신적 행태와 맹신집단의 좌충우돌을 인터넷 영상매체 등에 도배질하듯 올려놓고 모든 ‘한국인’을 싸잡아 비웃는다. 국제 문화의 공존을 연구하는 하버드대학의 다원기획(Pluralism Project)도 7월 4일자 ‘종교적 다양성 뉴스(RDN)’에서 한국의 불교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 편향에 맞서 투쟁할 예정(Buddhist groups plan to fight Christian bias in Lee Government)이란 제목의 보도를 게재했다. 이처럼 국제 학술지에까지 오를 정도로 국제망신이 따로 없다. 다음은 영국의 BBC에 게재된 ‘불교와 폭력’이란 칼럼의 일부를 편집 번역한 것이다.



계속되는 종교편향 발생에 불교계가 분노하고 있다. 사진은 7월 4일 열린 불교계 서구법회에 서 스님들이 108배를 하는 장면.

자세를 몰아세웠다. “누군가 이 세상의 모든 불제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이젠 탁낫한 선사께서 마지막 남은 불자들 잡시다.” 당시 베트남은 전쟁의 와중에 고딘디엔의 가톨릭 집권세력이 불자들을 체포, 고문, 살해하는 등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선사마저 죽이려든다면 선사께서 어찌 하시겠소?” 탁낫한 선사가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죽이도록 놔두겠습니다. 불교와 다른 마의 진실은 온 우주에 늘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그 진실을 찾는 한 언제든 다시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살생은 제가 배우고 지켜온 모든 가르침을 배신하고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나를 죽여 다르마의 참모습으로 남게 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 참전군인은 더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BBC의 칼럼처럼 좀 엉뚱하게 사찰무도론이 건넌다. 이렇듯 평화적인 불교와 어울리지 않는 각종 사찰무도가 발달한 까닭은 뭘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세속에 유행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승려들은 강인한 심신수련을 통해 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며 폭력을 막아

낼 능력을 갖춘다. 따라서 사찰무도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최소한의 방어술을 가르친다.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불교 역시 폭력과 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다. 14세기 대원제국말기에 탁발승 출신의 주원장 등 한족 불교도들은 몽골족 통치에 맞서 무장투쟁의 선봉이 되어 외세를 축출한다. 전근대시대 일본의 선승들은 무사들의 심신수양과 전투력 강화훈련에 참전수련을 도입한다. 일본제국 당시, 해외정탐과 사전공작에 투입된 ‘남인’ 중 상당수가 승려 출신이다. 그런데 BBC는 이와 유관한 한국불교의 역사적 유산을 간과하고 말한다. 삼국시대 신라의 화랑은 ‘문무를 겸비하고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승병조직’이었다. 이를 위해 원광 법사는 세속오계(世俗五戒)라는 다섯 가지의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균왕을 충성으로 받드는 사군이충(事君以忠), 효를 다해 부모를 모시는 사친이효(事親以孝), 또 믿음으로 벗과 사귀는 교우이신(交友以信)은 불자들 아닌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덕목이다. 그에 이어, 전투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입전무퇴(臨戰無退), 또 죽이되 가려하

라는 살생유택(殺生有擇)에 이르면 최소한 무력시위가 이미 불가피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그 후 고려시대에도 몽골침입에 맞서 호국승병집단이 무장봉기를 하고 승려 김윤후는 원정군 대원수인 살리타이를 사살하여 전세를 뒤엎었다. 조선의 임진정유양대 왜란 때도 마찬가지다. 사명당 등 휘하의 정예승병조직이 결사항전으로 이 땅을 지켜냈다. 그때는 이 땅에 기독교가 없었다. 우리 민초들은 주님의 은총이나 축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힘겨워 싸워 이 땅을 지켜왔다. 그것이 곧 한국인이 이뤄낸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기적이다. 그리고 민초들의 구심점이자 빛이 되어온 것이 한국불교다.

그런 한국불교가 지금 일부 광신집단이 선동 교사하는 제도폭력, 행정폭력, 사법폭력, 언론폭력 등 온갖 폭력과 음해에 노출되어 있다. 호국호법의 민족정통을 굽아대는 사악한 자, 참나적 권력의 배경을 믿고 구린 혀를 내두르는 천박한 자, 미리 알아서 발발 기는 누추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은 보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견제력의 사용여부는 그 자들이 북한 써먹는 이른바 상황윤리(狀況倫理), 곧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때를 보아가며 폐맛추면 될 터이다. 요즘 어떤 이들은 한국불교의 역경을 속단하고 우려한다. 그러나 역풍도 뜻을 다 두기에 따라 순풍으로 바뀌듯 ‘역경은 곧 역전의 기회’다. 집단광기의 역풍에 맞서기보다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향한 순풍으로 다뤄가는 지혜가 모자라리라 믿는다.

편역·성휴 스님
 기사참조: BBC, RDN(Harvard: Pluralism Project) BCTV, Topix, Radio Australia 기타
 영상참조: YouTube.Com : Crazy Korean
 Christians make children crazy, Crazy Korean
 Christian Maniacs 기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6

두 눈 뜨고 바로 보는 믿음

앨리스 워커의 문학세계는 무척 다양하고 풍부하며 그녀의 소설만 해도 <컬러 퍼플> 이외 예닐곱의 수작이 더 있다. 미국의 유명 불교잡지에 게재된 그녀의 인터뷰 가운데 일부다. 먼저 기자가 묻는다. “선생님께서 <컬러 퍼플>은 불교가 드러나지 않은 불교적 작품이라 하셨습니다. 불자이신 작가선생님께 직접 설명 해주실 수 있겠지요?” 그녀의 대답이다. “붓다께서는 붓다 시다르타 왕자로 호사스런 궁정생활을 하셨지요. 그러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알게 되시자 그 괴로움을 풀 어갈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서신 겁니다.”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당연한 현실에 불만과 저항을 지니긴 하지만 타성과 인습에 얽매어 정작 그 현실을 펼쳐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를

대로 걷는 구도의 길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해요. 예컨대, 셀리 자신은 슬픈 고통 끝에 이 마침내 신성(Godness)의 한 부분이 되어가요. 동시에 자아발견을 향해 떠나는 거죠. 저는 인간이 지닌 신적 요소, 곧 신성은 인정하지만 신의 존재는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신(God)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신을 부정하시나요? 아니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시나요?” “하하, 왜 저를 걸고넘어지려 하세요? 지금 저는 신이 아니라 누구나 지닌 보편적 신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론 선생님께서도 두 눈을 감고 신과 교감하면서 뭔가를 보시긴 하겠지요?” “하하, 참 재미있군요.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불교는 두 눈 뜨고 보는 마음으로 신의 존재를 몰라요. 불교는 두 눈을 뜨고 보는 신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붓다께서는 믿었습니다. 허버트 스펜서도 믿음을 과는 근본부터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뭘 보려면 눈을 떠야지 왜 눈을 감나요? 게다가 저는 두 눈을 감지 않아요. 제가 왜 멀쩡하게 뜬 눈을 굳이 감아야 하는 거죠? 신이란 여기저기 어디에도 있죠. 안 그래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신이란 거죠? 신을 찾고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자아의 내면을 밝히려 할 때만 눈을 감아요.” 그녀의 기가 막힌 답변이자 법문이다. 그녀는 보통 인간이 지닌 보편적 신성에 대해서도 과연 시인 앨리스 워커 같은 시적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내 방의 창 너머 보이는 작은 뜨락, 저 작은 단풍나무에도 넉넉하고 포근하며 따스한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 신성을 나는 엄마(Mama)라 불러요.”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엄마란 굳이 여성을 뜻하지 않는다. 앨리스 워커 보살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더욱 친근하게 염마라 부르고 있다. -계속- 성휴 스님

신성 인정하지만 신의 존재는 몰라 사물에 깃든 신성 '엄마'라 불러요

신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붓다께서는 믿었습니다. 허버트 스펜서도 믿음을 과는 근본부터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뭘 보려면 눈을 떠야지 왜 눈을 감나요? 게다가 저는 두 눈을 감지 않아요. 제가 왜 멀쩡하게 뜬 눈을 굳이 감아야 하는 거죠? 신이란 여기저기 어디에도 있죠. 안 그래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신이란 거죠? 신을 찾고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자아의 내면을 밝히려 할 때만 눈을 감아요.” 그녀의 기가 막힌 답변이자 법문이다. 그녀는 보통 인간이 지닌 보편적 신성에 대해서도 과연 시인 앨리스 워커 같은 시적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내 방의 창 너머 보이는 작은 뜨락, 저 작은 단풍나무에도 넉넉하고 포근하며 따스한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 신성을 나는 엄마(Mama)라 불러요.”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엄마란 굳이 여성을 뜻하지 않는다. 앨리스 워커 보살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더욱 친근하게 염마라 부르고 있다. -계속-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hy is it necessary to be quiet in class?”

수업 땐 왜 조용히 해야지?



At the kid's dharma class, the teacher told her little children, “I was so happy to see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the master said at the last Dharma talks.” While sharing some rice cakes over tea with them, she continued her talks, “But some of your senior students want

you to be quieter at the next ones. And why is it necessary to be quiet in class?” One bright little girl replied, “Because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are sleeping!” 어린이 법회의 선생님이 꼬마들한테 말했다.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번 법

회 때에 지도 법사님의 법문을 열심히 들어 줘서 참 기뻐요.” 선생님은 애들과 차와 떡을 나누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삼급반 학생들이 다음 법회 땐 여러분이 좀 더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업 땐 왜 조용히 해야 할까요?” 똑똑한 여자 어린이가 대답했다. “네,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코요 잠을 자니까요.” -번역: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태국서 18톤 옥불 조성 호주에 봉안 예정

오스트레일리아 벤디고시에 보내질 무게 18톤의 옥불(玉佛)이 태국에서 18개월 동안의 불사 끝에 완성됐다. 투명옥에 조각된 높이 3.5m의 옥불은 벤디고

시 교외에 건축 중인 10층 사찰에 봉안된다. 벤디고시 불사기회단 아이언 그린 회장은 이 옥불이 호주 도착이전에 태국의 방콕,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에서 순회전시되며 기타지역의 전시요청으로 추가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ABC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자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자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 교육시간 : 화요일 - 일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명상·최면 수강생 모집

- ▷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 ▷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